

# 압축된 도시화 겪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 우리들 작은 삶

## 문학이 있는 풍경 문학 도시를 가다

### (6) 원미동 그곳

문학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옛 원미구청 앞 거리 조성  
'대지'의 작가 펠릭기념관  
수주 변영로 '마음의 고향'  
정지용 시인도 3년간 거주

"이사해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어느 날 문득 전철을 타고 내달려와서 기웃거리다가 우리 형편과 비교적 맞는 것 같아서 살게 된 곳이 원미동이었다. 이름이, 동네의 어설픈 외양과는 별 상관 없이 낭만적이었다. 그것도 위안은 되었다." 2년 동안 쓴 연작들을 모아 한 권의 소설책으로 묶으며 양귀자 작가는 이런 후기를 덧붙였다. 작가는 뒤이어 적었다. "한국 사회의 이주(移住) 현상을 무슨 표본처럼 보여주는 이 도시의 인간됨을 나는 동병상련하게 되었고, 그것이 연작을 구상하게 하였다."

어떤 소설인지 짐작할 듯 싶다. 양귀자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이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서 시작해 '한계령'에 다다르는 10편의 소설 속 원미동을 두고 평론가 홍정선은 "희망과 절망, 폭력과 소외, 갈등과 이해 등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작은 삶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평했다. 그곳은 문학으로 구현한 '작고도 큰 세계'였다. 소설집이 출간된 80년대를 지나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원미동 23동 거리. '문학도시' 부천의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름이 그 원미동이다.

양귀자 작가는 일찍이 원미동(遠美洞)을 떠났지만 부천은 이 도시에 남긴 그의 소설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원미구청이 있던 곳에 들어선 경기 부천시 원미어울마당.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갖춘 원미어울마당 앞에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조성돼 있었다.

그 거리에 가면 강노인, 원미동 시인 풍담씨, 김반장 등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만나게 된다. 책을 펴거나 집을 든 그들의 머리 위엔 소설의 문장들을 아로새긴 또 다른 조형물이 서있다.



1 부천문학지도.  
2 문학의 배경지를 말해주는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안내판을 따라 걷다보면 시장 풍경과 만난다.  
3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원미동 시인 풍담씨 조형물. 코로나19 방역 홍보용으로 마스크를 씌운 모습이다.  
4 펠릭 홍상 너머로 펠릭기념관이 보인다.  
5 소사희망원 터에 조성된 펠릭기념관 내부.  
6 부천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긴 수주 변영로 기념비.



'원미동 사람들' 간판을 단 음식점이 문학의 배경을 일깨울 뿐 원미지뫼도, 행복사진관, 씨니전자, 강남부동산, 우리정육점, 서울미용실, 형제슈퍼, 무궁화연립 등은 이제 소설 속에만 살아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이 등지를 뜬 이들의 낱알도 우리네 삶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문학도시 부천'의 길은 원미동에서 멈추지 않는다. '대지'의 작가인 노벨문학상 수상자 펠릭(1892~1973)이 있다. 부천시는 한국전쟁 기간에 도시와 인연을 맺은 그를 떠올리며 2006년 9월 소사희망원 터에 펠릭기념관을 세웠다.

펠릭은 선교사인 부모와 함께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국의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그는 미국에서 친구로 지내던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도움으로 지금의 기념관 주변 부지를 받아 1965년 한국필적재단을 꾸렸다. 1967년에는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전갱고아와 혼혈 아동, 그 어

머니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살아있는 갈대', '새해' 등 한국 배경 작품도 세 권을 냈다. 펠릭은 특히 1963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소설 '살아있는 갈대'에서 한국을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로 묘사했다.

외관에서 옛 건물의 흔적이 느껴지는 펠릭기념관은 문학만이 아니라 인종 간 편견 해소와 이해 증진에 노력했던 인륜운동가인 펠릭의 생애를 살필 수 있도록 꾸렸다. 현재 고인의 유품, 자료, 도서 등 400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문화다양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 펠릭기념문학상, 학술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부천은 1973년 시로 승격하며 급격한 도시화의 길을 걸었다. 일찍이 '원미동 사람들'에서 그려졌던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를 겪으며 온몸으로 도시의 애환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문학은 꿈을 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힘으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

지금껏 문학관 하나 없었던 '문학도시 부천'이지만 '부천문학지도'를 펴들면 양귀자, 펠릭 이어 또 다른 작가들이 보인다. '눈개'의 시인 수주 변영로(1898~1961),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란 동시 '자전거'를 쓴 아동문학가 목일신(1913~1986), '향수'의 시인 정지용(1902~1950)이 그들이다.

시인 정지용은 해방 전후 3년간(1943~1946) 부천군 소사읍(지금의 소사동)에 거주했고 부천 최초의 성당인 소사성당을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부천은 정지용 거주처 기념표시, '고향' 시비 설치 등으로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를 도시의 문학자산으로 불잡았다.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지조를 지킨 지식인이었던 변영로에겐 부천이 마음의 고향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인의 호 수주(樹州)는 고려시대 부천의 지명이다. 호를 딴 고강동 수주로엔 변영로 탄생 100주년기념비와 시비가 선 변영로 묘소가 있다. '생시에 못 뵈을 입을

꿈에나 빌가 하여/ 꿈 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리우고 흔들리어/ 그림판 그대 가까이 두 멀어라.'는 검은 빛들의 시구에 눈길이며 머문다. 근래 후손들이 수주 삼형제를 기리며 세운 '한국삼변선생충혼비'가 더해진 묘소로 가는 길엔 1997년 한국문인협회에서 설치한 '수주 변영로 선생의 고향집' 표시도 놓였다.

목일신은 1960년부터 줄곧 부천 범박동에서 살다 생을 마쳤다. 그곳에서 400편이 넘는 동시와 동요를 지었다. 범박동에는 작가의 이름을 붙인 일신초등학교와 일신중학교가 있다.

이들 문학의 공간 말고도 공원이나 물길을 따라 걷다보면 부천이 품어온 문학의 무늬가 차례로 다가온다. 거기엔 변영로, 양귀자, 펠릭, 목일신의 이름을 붙인 인도교가 있다. 부천시청이 내다보이는 도심 부천중앙공원엔 시비가 얼굴을 내민다.

글·사진=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축**  
수상  
농업발전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홍운택·이혜정 부부  
(2003년 새농민상 수상자)

농업발전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귀농업협동조합

**축**  
수상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임병언·김미숙 부부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귀농업협동조합

**축**  
선발  
대한축구협회 (KFA)  
국가대표

김지현 선수  
(제주제일고, 한라대학교, 강원FC)

신제주축구회 김무룡 회원님의 자녀가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 벤투호 선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제주축구회  
회장 이일 외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에브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